

지역 소식통

완주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접수

완주군이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을 한도로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당해연도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다.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혼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 워크숍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금산면 금산문화복지센터에서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 지역별 대표 전문가인면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경하 박사 등 전문가 3명을 초청해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적용 사례를 통해 김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린 분과별 과제 발굴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시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여성친화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부터 여성친화도시 20여개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제발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시정의 전반적인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실과소 70%이상 직원의 참여를 유도해 과제발굴 워크숍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기회발전특구지정 선정

지평선 제2 산단·백구 산단 지정... 미래 모빌리티산업 중심 도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평선 제2 산업단지(88만2,272㎡)와 백구 일반산업단지(33만6,322㎡)가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 최대 규모로 미래 모빌리티산업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평선 제2 산업단지, 백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취득세 감면 상속세 혜택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시 5% 가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받게돼 수도권 기업 이전 및 대규모 투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으로 한 특장기업 및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평선 제2산업단지의 입지 여건, 우수 앵커기업 유치 등 김제시 모빌리티 인프라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우수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해부터 미래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IR활동을 펼쳐 지난 3월 28일 (주)대승, (주)창립모아츠 등 7개기업*과 총 4,036억원 규모의 투자, 496명의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으며, 산업

부 현장 평가, 산업부 실무위원회 심의 및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 등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 7개 기업의 앵커기업 역량,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이번 쾌거를 이뤘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선도기술 확산은 물론, 연관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의 선순환 확산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분기 기회발전특구 1차 선정지는 전국 8개 지구가 선정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평가에서 김제시 소재 8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평가'

김제시, 8개소 최우수기관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평가에서 김제시 소재 8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전국 총 1만300개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가지 항목(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호, 급여 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에 대해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향상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기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왔다.

최우수 선정기관 중 김제노인복지센터는 주야간보호 95.35점, 방문요양 96.35점으로, 5개 영역에서 전국 상위 10% 이내 높은 성적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제노인복지센터 박경란 센터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이뤄낸 결실로써, 섬김의 자세로 직원들과 하나 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초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복지서비스를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결정 쾌거

고유 브랜드로 거듭나... 전통 자연건조 방식 맛·품질 우수 평가

완주군의 9품 중 제1품인 '완주곶감'이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등록심의회에서 최종 등록승인 결정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국가가 지역의 특산품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고

유명사로 통용돼 큰 브랜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1일 완주군은 등록공고를 위한 서류 보완제출을 완료했고, 산림청에서 2개월간의 등록공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적 원안지를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농·임산물 최초로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했으며 곶감 두레시와, 씨없는곶감 고종시 2개 품목을 함께 신청했다.

두 품종 모두 건조작업시 전통 자연건조 방식의 유지와 생산지 지리적 특성이 명확하고 당도, 식감 등 품질이 무척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 농·임산물 중 1호로 지리적표시 등록된 '완주곶감' 홍보를 위해 군은 추가 자재예산을 투입해 포장박스 디자인 개선, 생산 농가 역량강화, 품질관리업 운영,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승인은 완주 곶감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사)완주곶감연합회(이시장 정택)와 함께 완주곶감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며 "전통 자연건조 생산하는 완주곶감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 9품 중 제1품인 '완주곶감'이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등록심의회에서 최종 등록승인 결정됐다.

김제, 건강한 스포츠 도시 도약 신호탄

용지면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신규 체육시설 6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1일 용지면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하며 건강한 스포츠 도시 도약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이날 용지면(용지면 용수리)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자리해 노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게이트볼장의 준공을 축하했다.

용지면 실내게이트볼장은 지난 2023년 사업을 시작해 1년 6개월여 만에 문을 여는 체육시설로 건립에 도비 3억을 포함, 총 7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시설규모는 게이트볼장 1면과 화장실 등 부대 편의시설로 이뤄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202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우수기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이어 올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최우수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백만원을 수여 받았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후 올해 다섯 번째 추진되고 있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과 우수성, 계절관리제 홍보·소통 노력, 시행협조 등 총 8개 지표를 토대로 실시됐다.

시는 공회전 제한 캠페인 추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홍보 및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명실공히 인정 받았다.

또한 5,863대의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 소유주에게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내문을 발송 및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으로 드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정성주 시장은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특화 대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미세먼지 없는 더욱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